

Merck, 케냐 주혈흡충증 퇴치운동

Merck는 WHO(세계보건기구)와 케냐 전역에서 번지고 있는 열대 풍토병인 주혈흡충증 퇴치약 Praziquantel을 보급해 주혈흡충증 퇴치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Merck는 현재까지 Praziquantel을 주성분으로 하는 정제를 매년 최대 2500만정씩 WHO에 무상 공급해왔으며 Merck가 WHO에 기부한 Praziquantel이 1억정을 돌파했다.

케냐는 주혈흡충증 유병률이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나라로 치료가 필요한 국민 수가 1100만명에 달하고 있고 대부분이 어린이로 알려지고 있다.

머크 세로노사업부 대표인 스테판 오스만은 “Merck가 5년 전 WHO의 주혈흡충증 퇴치 프로그램을 지원한 이래 현재까지 11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2800만명의 어린이가 치료를 받아왔으며 중기적으로 기부규모를 10배 많은 연간 2억5000만정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혈흡충증은 만성 기생충 질환으로 편충을 통해 전염되며 깨끗한 식수 이용이 어렵고 위생환경이 열악한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 만연해 있다.

주로 민물 주변에서 사람들이 조업, 수영, 낚시, 세탁 활동을 할 때 물속에 있는 유충을 통해 감염되며, 소량의 유충이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와 간에서 성숙된 뒤 혈관을 타고 이동하고, 암컷 성충이 나온 알이 조직이나 장기에 들어가면 면역반응을 일으켜 체내 손상이나 질환을 야기한다.

말라리아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유병률이 2번째로 높은 열대병으로 감염자 수가 2억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아프리카에서만 매년 20만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창선 기자>

<화학저널 2012/12/11>